

여전사 글로벌 진출 활성화 간담회

개 회 사

2023. 6. 14.(수) 10:00

여신금융협회 대강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오늘 여전사 글로벌 진출 활성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여신금융협회 임직원 분들과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간담회는 3월부터 진행해온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의 일환입니다.

* 금투업(3~6월), 핀테크(4월), 보험업(5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를 기대합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 환경변화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가 각각 다른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물품, 시설 등에 대한 결제 및 자금공급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생활, 실물경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의 혁신과
경제·금융환경 변동에 따른 변화의 속도를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치열한 디지털 전환과 건전성 관리 등
체질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 카드사 총자산(조원) : ('17) 113.9 → ('19) 130.2 → ('21) 157.3 → ('22) 179.8

비카드사 총자산(조원) : ('17) 131.1 → ('19) 161.8 → ('21) 207.4 → ('22) 232.6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업권 내, 업권 간 경쟁 뿐 아니라
간편결제, 소액후불결제 등을 탑재한
핀테크와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금융상황도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여신전문금융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당국과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3. 해외진출 현황 및 필요성

디지털화는 기존에 금융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들에도 디지털 방식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등 결제시스템 변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축적된 구매 습관 등 데이터는 기존에 금융 거래 기록이 없거나, 금융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가능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새롭게 발전할 신흥국 시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우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결제 시스템 제공과 자금 공급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달 여신전문금융회사들과 함께 직접 이러한 해외 진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BNK Finance 개소식(BNK캐피탈, 5.18일), 키르기스스탄 금융선진화를 위한 결제인프라 구축 협약식(비씨카드, 5.19일) 참석

우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그동안 쌓아온 결제, 자금공급 분야 노하우의 글로벌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직 진출 초기 단계인 시장의 경우
각종 리스크 관리에 유념해야 하지만,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 만큼
국내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수익원 확대 및 다양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출자의 신용도 파악이 어려운 시장일수록
신용공급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가지는 만큼,
현지 시장의 금융선진화 달성에도 기여하고,
이는 다시 한국 금융회사들의 추가적인 진출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4. 맺음말씀

저는 지난달 여신전문금융회사와 함께한 해외출장에서
우리 금융회사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직접 영업사원이 되어 해외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우리 금융산업과 회사들을
세일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여러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전문가들께서
주시는 현장의 의견도 직접 성실히 청취하고,
앞으로도 해외진출을 위해 우리 금융사들을
적극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금융사, 핀테크사와의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중에는 전체 금융업권 종합 간담회를 열고
그간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여신전문금융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허심탄회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